_____월 _____일

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.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

문장은 쓰는 게 아니라 뽑는 것이었다. 서울 용산 독립서점 고요서사에 가면 이른바 '문장 뽑기' 기계를 볼 수 있다. 문방구 앞에 흔히 있는 뽑기 기계로,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'문장 캡슐'이 나온다. 캡슐을 열면 아침·점심·저녁용 약 봉투가 있고, 그 안에 짧은 문장이 적힌 종이가 담겨 있다. 종이에 적힌 문장은 소설가 김애란, 시인 이원부터 영국 소설가 존 버거까지 국내외를 아우른다. (생략)

책 안 읽는 시대, 독자에게 문장을 건네려는 간절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. 서울 연남동 서점 데메테르북스가 지난해 9월부터 문장 뽑기를 비치하고 윤동주·괴테 등의 짧은 시를 넣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. (생략)

– 조선일보 2018년 2월 2일





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.

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.

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